

# 시추정보 검수 및 활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

이우식\*, 장용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미래융합연구본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하공간안전연구센터

e-mail:wslee@kict.re.kr

##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Inspection and Utilization of Geotechnical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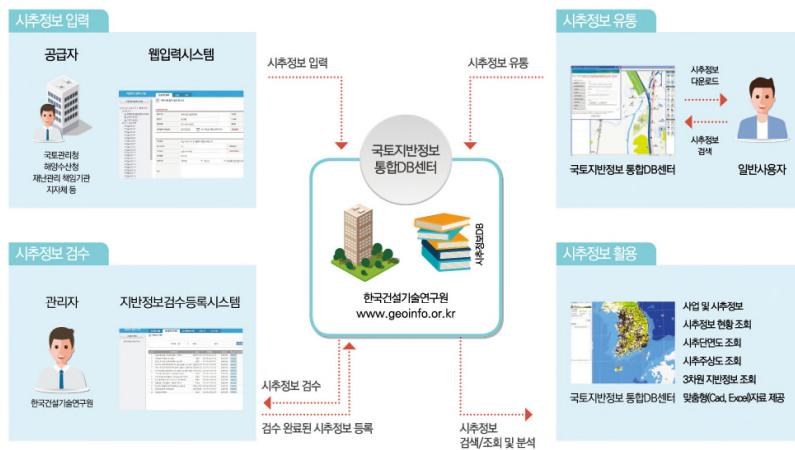
Woo-Sik Lee\*, Yong-Gu Jang\*\*

\*Dept. of Future Technology and Convergence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Underground Space Safety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 요 약

최근 도심지 고층빌딩, 지하터널 및 도로 건설 등 지하공간의 개발 증가와 함께 계속되는 지하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예방 및 대응 차원에서 시추정보가 핵심정보로 부각되고 있다. 시추조사는 물론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정보공유 및 자료처리의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추조사 자료의 DB 구축 및 유통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전국의 건설현장에서 생산되는 시추정보는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전산화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말 기준 29만 여공의 시추정보 DB가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역에서의 시추정보 활용범위와 향후 활용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수립을 위하여 시추공정보 활용 가능 지역 분석맵을 구축하였다. 이는 전국도의 시추공 활용 가능지역 분석 맵 및 시추정보 활용성 통계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고자 함이다. 전국단위 시추정보 활용분포를 분석한 결과 시추공의 활용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시로 15.02%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시추공의 활용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0.1%인 제주도로 나타났으며, 전국도 대비 시추공 활용성은 1.12%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추정보의 지역별 활용성 분석 결과 현재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에서 보유 중인 시추정보로는 활용성이 다소 떨어지며, 국토지반정보 통합 DB센터에서 보유중인 시추정보에 민간부문의 시추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심지의 민간부문 시추정보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심지 내 지하안전관리에서의 시추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한 민간부문 지반조사보고서의 수집 및 전산화는 매우 중요하다. 민간에서 발생한 지반조사보고서의 공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화가 필요하다. 민간부문 지반조사보고서 공유 자동화 방안에 대한 시스템간 협의가 필요하며, 경제성, 보안성, 실효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와 함께 법제도적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 시추정보 유통프로세스

###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2019년 건설 시추정보 전산화 사업” 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